

부산·울산 육상 특보 구역 세분화, 선택과 집중의 방재 대응 첫걸음!

부산지방기상청(청장 이은정)은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위험 기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울산광역시의 육상 특보 구역 세분화를 시행한다.

기상청은 기본적으로 행정구역인 시·군을 한 개의 특보 구역으로 구분하여 특보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특성의 변화, 도시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같은 특보 구역 내에서도 기상·사회 특성이 서로 달라 방재 대응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기상청은 2020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육상 특보 구역을 세분화하였으며, 2024년 5월 30일부터는 부산·울산광역시의 육상 특보 구역 세분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부산·울산광역시의 기상자료에 더해 지형, 인구 분포, 경제 구조를 분석하여, 부산시는 3개, 울산시는 2개의 특보 구역으로 세분화*하였다. 이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2023년 여름철과 겨울철 위험 기상에 대해 세분화 안을 시험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해안지역과 내륙 지역을 구분하거나 시간차를 두고 특보를 발표할 수 있는 등 세분화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부산·울산광역시 육상 특보 구역 세분화

[부산광역시] 1개 구역(부산) → 3개 구역(부산동부, 부산중부, 부산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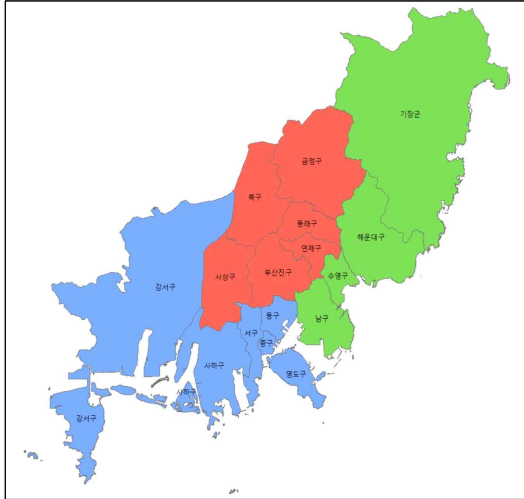
[울산광역시] 1개 구역(울산) → 2개 구역(울산동부, 울산서부)

이은정 부산지방기상청장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바다에 접해 있지만 동시에 산지도 포함하는 등 복잡한 자연환경과 높은 인구 밀도, 다양한 산업구조를 가진 도시이므로, 육상 특보 구역을 세분화할 때 기상·사회·경제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라며 “한층 더 세밀한 특보 발표를 통해 실제 위험기상 발생 지역으로 방재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지자체 등 방재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재해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고 밝혔다.

붙임 부산·울산광역시 육상 특보 세분화 구역도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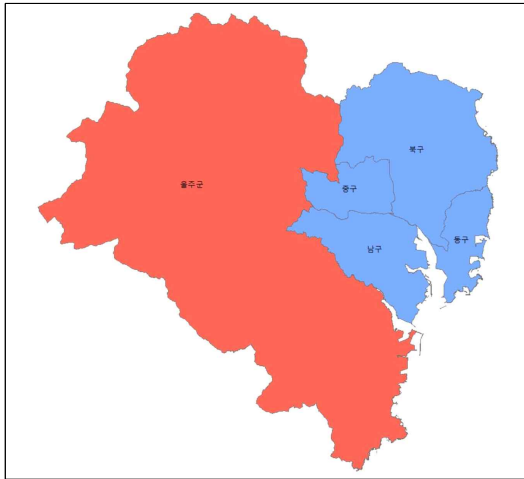
담당 부서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책임자	과 장	선지홍 (051-718-0320)
		담당자	사무관	김연매 (051-718-0351)





구역	대상지역
부산동부 (초록)	기장군,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부산중부 (빨강)	금정구, 북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부산서부 (파랑)	강서구, 사하구,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광역시 육상특보 구역도]



구역	대상지역
울산동부 (파랑)	북구, 중구, 남구, 동구
울산서부 (빨강)	울주군

[울산광역시 육상특보 구역도]